

과학은 우리의 꿈과

존경하는 5백만 과학기술인 여러분!

희망에 찬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꿈과 새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밤 하늘의 무수한 별과 은하는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가? 우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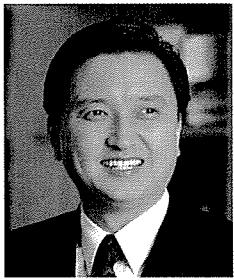
언제 시작되었으며, 그 끝은 어디인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은 지난 수천년 동안 가져온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철학과 예술, 점성술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지만 허블 망원경이 보내온 천체 사진 하나가 우주의 법칙과 신비에 한발 더 다가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단지 자연과 우주의 법칙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세계와 미래에 대한 도전임을 알게 됩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만이 살아남는 글로벌시대에 선진 국가로의 발돋움은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식기반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50%를 넘어섰고, 향후에는 지식격차가 빈부격차보다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신기술은 경제사회의 변혁 주도

IT, BT, NT로 대변되는 신기술은 우리 생활과 경



金 榮 煥

(과학기술부 장관)

제의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면서 경제사회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기술간 또는 신기술과 전통기술간 융합·복합화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산업이 탄생하고 기술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15.8%나 늘려서, 과학기술 R&D 5조 시대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부족하여 많은 부처의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에는 IT, BT, N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의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투자 비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을 강화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선진적인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기반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운영하고 국립서울과학관 건설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은 단지 과학과 기술만이 아니라 정보, 문화, 교육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창의적인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전의 성패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공계 대학 응시자의 감소, 평준화에 묶인 과학영재 교육, 활용되지 않는 여성 과학인

미래에 대한 도전

력, 우수학생의 법대·의대 집중,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과학기술을 즐겨야

예를 들면 대입 수능 시험에서 자연계열 응시자의 감소는 고교시절에 자연계 기초과목에 대한 학습부족으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의대의 경우 임상의사를 배출하는 데 치중하고, 많은 이공 대생이 고시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과학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을 즐기고 소중히 하며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대중화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중학생의 경우 국제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1~2 위를 다투고, 또 중고생의 과학학습능력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청소년들이 과학을 즐기고 소중히 하면서 미래의 아인슈타인과 빌게이츠가 될 때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은 미래의 예비 과학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자들이 1년에 1권의 과학도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운동은 과학기술인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의 관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찾아가서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전파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을 만드는 노력입니다.

아울러 사이언스 북 스타트 운동은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자로서의 정체성과 일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과학기술인의 자각과 자립운동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 없이 많은 참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임오년 새해에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